엘러간, 암 환자만 치료비 전액 보상

관련 검사비용 실비 지원
확진 시 최대 7500 달러
"환자에 대한 배상 당연"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후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는 의료비용 전액을 엘러간이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들에 대한 '배상'이 아닌 '보상'안을 내놓은 엘러간과 보건당국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비용, 무상교체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해 희귀암 발생 요인이 된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이런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엘러간은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질환인 인공유방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과 연관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 세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보건당국과 보상 대책을 협의해왔다. 국내에서도 최근 희귀암 발생이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BIA-ALCL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달러)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확진 시에는 환자 부담 진료비(비급여 포함)를 최대 7500 달러까지 지원하게 된다. 만일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환자부담 진료비(비급여 포함)를 개별 환자 별로 추가 지원도 이어진다.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엘러간은 오는 2021년 7월 25일까지 인공유방 보형물 교체를 원하는 하는 경우에는 엘러간 내트렐 스무스 타입(매끄러운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모든 보상은 미국에서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무상 교체를 할 경우, 보형물 제거 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다. 다만 식약처는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용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 또는 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지만 환자와 소비자들은 엘러간과 식약처의 방침에 만족하지 못했다.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배상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엘러간의 유방 보형물로 인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미 인과관계가 드러난 역형성 대세포림프종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이 없어도 제조물책임법상 당연히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증상은 없지만 위험성이 있는 제품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에 하는 것이 보상이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제대로된 보상안이 없는 한, 결국 환자들은 집단 대응을 통해 개별적인 구제절차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가을 유행 선도하려면… '얼씨 룩'에 주목

패션업계, 계절감 살린 신상품 출시
실용성·보온성 겸비… 구매욕 자극

마모트 로고플레이 맨투맨 시리즈. /마모트

올 가을에는 '얼씨 룩(Earthy Look)' 트렌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흙과 나무를 연상시키는 뉴트럴 컬러 스타일로, 브라운이나 베이지, 카키 등이 활용된다.

자연의 색상을 앞세운 얼씨 룩은 화려하진 않지만 편안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색상들은 톤온톤 매치로 스타일리시한 착장을 연출할 수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업체들은 가을을 맞아 뉴트럴 컬러를 강조한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한편, 계절감을 살린 신상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가을 패션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야상 점퍼'가 대표적이다. 대충 걸쳐도 멋스럽고, 실용성에 보온성까지 겸비해 매년 트렌드세터들의 구매욕을 자극한다.

캐주얼 브랜드 버커루가 선보인 야상 후드 점퍼는 나일론 코튼 소재로 루즈한 핏 감을 살려 어떤 아이템과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 상·하단의 볼륨감은 최소화하고 디테일한 포인트를 살려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살렸다. 카키, 블랙 컬러를 앞세운 화보를 통해 빈티지한 매력을 드러냈다.

롱 자켓이나 쇼트 자켓 등 아우터들도 자연의 색을 입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선보인 '에코 플리스 컬렉션'의 '롱 테디 코트'는 리사이클링 원단을 사용한 긴 기장에 보온성을 한층 강화한 제품으로, 뉴트럴 컬러와 스타일이 적용돼 얼씨 룩을 연출하기에 좋다.

뉴트럴 컬러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을 법한 흔한 컬러로,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하기 좋다. 톤온톤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패턴 등을 가미해 뉴트로 감성으로 변형도 가능하다.

노스페이스의 롱 테디 코트. /노스페이스

패션업체들은 원피스나 셔츠,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 자신만의 얼씨 룩을 연출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우터뿐만 아니라 원피스, 셔츠, 팬츠, 액세서리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성복 브랜드 크로커다일레이디는 올 봄·여름에 이어 가을·겨울에도 얼씨 룩 트렌드를 겨냥한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이와 함께 '룩 포, 룩 라이크, 룩 앳(Look for, Look like, Look at)'을 테마로 한 화보를 통해 클래식한 가을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블랙야크의 마모트는 맨투맨으로 올 가을 트렌드에 합류했다. 로고 플레이로 캐주얼하면서도 젊은 감성을 강조한 '로고플레이 맨투맨 4종'을 선보인 것. 면폴리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빅로고 프린트와 베이직 컬러부터 뉴트럴 컬러를 적용한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그로버', '오비드', '에클리', '빌그린' 등이 출시됐다.

골프웨어 브랜드 힐크릭은 톤온톤 컬러 매치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도 다양한 패턴 포인트로 레트로 감성을 더한 스타일을 제안했다. '프릴 집업 베스트', '패턴 프린트 큐롯', '쟈가드 패턴 풀오버' 등이 올 가을을 겨냥해 출시됐다.

이너웨어도 예외는 아니다. 좋은사람들의 예스는 톤다운된 옐로우·레드 등 단풍 색을 더한 '머스타드 옐로우 레이스 브라'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가을철 인기가 높은 체크·레오파드 패턴에 얼씨 트렌드를 더해 한층 부드러운 느낌의 제품을 선보였다. 보디가드의 '사바나 치타 브라'나 예스의 '보스턴체크 브라' 등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얼씨 룩' 이란?
'지구'에서 유래된 용어로, '흙, 흙 같은' 패션이라는 뜻이다. 흙이나 나무, 모래 등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사용한 패션이다.

86세 나이에도… 고령 뇌사환자 장기 이식

이대서울병원
86세 뇌사자 '간' 기증하고 영면
고 윤덕수씨 최고령 '생명 나눔'

이대서울병원 의료진들이 최고령 장기기증자 윤덕수 씨 장기 기증 수술에 앞서 의료진이 기증자에 추모 의식을 하고 있다.

86세 고령의 뇌사 환자가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국내 장기기증 사례 중 최고령 사례다.

30일 이대서울병원에 따르면 86세 남성인 故 윤덕수 씨는 지난 23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 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이대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된 윤덕수 씨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윤 씨의 유가족은 평소 나눔을 좋아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는 24일 윤덕수 씨의 장기 중 간(肝)의 기능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장기 기증 절차를 밟아 26일 장기 적출술을 시행했다.

홍근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고령이지만 연령에 비해 좋은 장기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간을 기증할 수 있었다"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환자를 위해 기증을 결심해 준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씨를 진료했던 이대서울병원 응급중환자진료과 박진 교수는 "환자가 고령이라 장기 기증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난관이 많았지만 환자가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 기증할 수 있었다"면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료 수준이 높아진 만큼 나이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장기 기증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동국제약,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노바티스〉

에버그린전략 '무효' 최종 판결

동국제약은 장기서방형 주사제인 옥트레오티드(octreotide) 서방형 제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원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산도스타틴 라르라는 제품명으로 노바티스에서 판매중인 옥트레오티드의 에버그린전략(연장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법원은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으로 판단,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동국제약은 2000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의 장기서방출성기술을 기반으로, 이미 항암제 '로렐린 데포' 등 첨단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해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완제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규격 기준 및 규제가 까다로운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동국제약의 성과는 다국적 제약사의 연장특허 등록과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향후 개발하고 있는 첨단 펩타이드 제품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본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침해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특허무효화를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전략을 정당하게 견제하는 공세적 전략"이라며, "본 소송을 통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R&D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트레오티드는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1998년 미국 FDA에서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다.

말단비대증은 성장이 멈춘 성인에게서 성장호르몬 과분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전체 환자수가 약 3,000여명으로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당뇨병,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심근병증, 직장암 등의 발병이 증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세경 기자

편의점 동절기 상품 이른 추위에 매출 증가

이른 찬바람에 편의점에서 동절기 상품을 찾는 고객이 부쩍 늘고있다.

편의점 GS25는 서울 최저기온이 13.6℃ 이하로 낮아진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따뜻한 음료인 ▲카페25 (HOT 메뉴) 143.7%, ▲컵형 차류 126.6%, ▲온장고 음료(꿀물, 캔커피, 두유, 한방 음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6%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보온, 보습 등을 위해 겨울철 판매가 늘어나는 ▲립케어 상품은 134.7%, ▲핸드크림 63.3%, ▲스타킹 173.5%, ▲마스크 93.9%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기약(안전상비의약) 매출은 126.9%로 급증했다

GS25는 갑작스런 추위 및 큰 일교차로 동절기 상품 및 의약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인규 GS리테일 간편 먹거리 상품기획자(MD)는 "이번에 출시한 즉석컵어묵은 고품질 맛과 편리함으로 고객 니즈를 맞춤과 동시에 별도 조리과정 없이 중탕 후 간편 판매 가능한 상품을 출시해 가맹점의 운영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